선택 6·4

이런 후보가 좋아요

광주·전남 유권자 30명에 듣는다 〈2〉

실천 가능한 공약 내놨으면

이승기(강진군 한우협회 회장·61)=선거철이면 투자유치 실패 사례와 이로 인해 방치된 사업장 문제가 후보 간 공방거리로 등장한다. 실현 불가능한 거창한 공약보다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계형 공약들이 나왔으면 한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민들을 섬기고 아껴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다. 또 축산인의 입장에서는 한우 명품화 시책 사업을 위해 더욱 지원·투자해 주길 바란다.

약속 잘 지키는 후보 돼야

조준포(66·광주시 북구 산수동)=공약을 잘 지키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 선거 운동 기간땐 마치 모든 공약을 다 잘 지킬 것처럼 해놓고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나 몰라라 하는 후보들이 많은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공약을 잘 지켜줬으면 한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보다 중앙 당론만을 우선시하는 후보는 안 된다. 또 말만 앞세우는 후보는 지역민들이 찍지 않아야 한다.

체육 엘리트 육성할 후보

이남현(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47)=체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활체육은 물론 체육 엘리트들도 육성해야 한다. 엘리트 체육은 그 지방 또는 나라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월드컵이라는 체육 이벤트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 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모두가 박지성은 될 수 없지만 박지성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남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줬으면 한다.

일자리 '희망 고문' 이제 그만

정상욱(예술인·30)=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보면 청년과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속 빈 강정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표적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일자리는 당사자에게 희망고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일자리 개수에 얽매이지 말고 내실있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허황된 공약 재검토를

서원용(회사원·38)=모든 후보는 공약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시늉만 내는 공약 실천이 아닌 시민들이 "정말 공약을 잘 지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후보자도 자신이 내놓은 공약이 실천 가능한 지를 재점검해 봤으면 한다. 선심성 공약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시민들께 사과하고 강단 있게 공약 철회 의사를 밝힌다면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 vs 무소속 대결 20대 발길 잡았다

사전투표율 20대 18%·60대 16%…세대간 대결양상

강진·장흥·장성 등 격전지 투표율 높아…동원선거 지적도

광주·전남지역의 6·4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단체장 등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29세 이하의 투표율도 높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원 선거의 의혹도 제기되는 등 사전투표제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1일 선관위의 사전투표 집계에 따르면 전남이 18.05%로 16개 시도 가운데 투표율 1위를 기록했고, 광주도 13.28%였다.

전국 평균(11.49%)에 비해 광주·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민병두 공보단장은 "무소속 후보 대 새정치연합 후보 간 대결이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의원도 "무소속 후보와 새정치연합 후보가 세게 붙은 곳이 많다 보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과열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전남에서는 강진을 비롯해 장흥(26.53%), 장성(25.13%), 신안(24.63%), 구례(23.27%), 곡성(23.10%), 영광(22.74%), 영암(21.49%) 등 격전지 중심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곡성 등 무소속으로 출마한 단체장과 새정치연합의 후보 간 대결을 펼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

강진의 경우에는 군의원 선거가 치열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지역은 22개 시장·군수 등 단체장 선거에서 10곳 가량은 새정치연합과 무소속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사전투표제에 관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뜨거운 관심은 그동안 선거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의 발길도 사로잡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29세 이하가 3만8723명(17.61%)이나 투표를 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60~69세(15.53%), 50~59세(14.02%), 70세 이상(12.75%) 순이었다. 또 여성(10.71%)보다 남성(15.98%)의 투표 참여가 많았다.

전남지역도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25.99%)의 투표율이 단연 높았고, 50~59세(18.52%), 40~49세(17.42%), 60~69세(16.31%) 순으로 사전투표소를 많이 찾았다.

사전투표에 유권자가 몰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다수의 유권자가 함께 이동한 뒤 투표소에 입장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단체 관외투표를 하는 등 사전투표제의 단점도 노출됐다. 유권자를 동원한 뒤 다른 지역 투표소에서 단체 투표를 하면, 상대적으로 적발하기 힘든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 일꾼 내 손으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30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후보들 부동층 잡기 '올인'

윤장현, 안철수 대표 동행 경로당·충장로 등서 지지호소

강운태-이용섭 선대위장, 챔피언스 필드·금남로 집중유세

6·4 지방선거의 승부처가 될 마지막 주말과 휴일을 맞아 광주시장 후보들은 모든 조직을 가동해 막판 총공세를 펼치며 부동층 잡기에 '올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고, 무소속 강운태 후보는 이용섭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전략공천' 부당성을 호소하며 표심 공략에 총력전을 펼쳤다.

윤 후보는 "선거막판 판세가 역전됐다"며, 강 후보는 "이용섭 전 후보와 단일화 이후 승기가 확실하게 굳어졌다"며 서로 승리를 자신했다.

◇**윤-강 주말·휴일 대회전**=두 후보는 1일 충장로에서 '맞불 유세'로 힘겨루기에 나섰고, 경로당과 대형마트, 야구장,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돌며 부동층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윤장현 후보는 광주 남구와 광산지역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보며 기독교계 표심을 공략했으며, 오후에는 안 대표와 동행하며 북구 경로당 방문, 충장로 합동 유세, 지역원로 만찬에 이어 광주 곳곳을 돌며 저인망 유세활동을 펼쳤다.

1박2일 일정으로 이날 오후 광주를 찾은 안 대표는 윤 후보와 함께 북구 중흥2동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하며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강운태 후보는 이날 이용섭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 신세계이마트 맞은편과 기아챔피언스필드, 월곡동 일신아파트 버스 승강장, 금남로에서 집중 유세를 갖고 '전략공천 심판'과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섭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지지자 수백명과 함께 시민에게 '100배'를 올렸다. 이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낙하산공천으로 인해 무너져가는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이정재, 통합진보당 윤민호, 노동당 이병훈, 무소속 이병완 후보도 주말과 휴일 각자 무등산이나 터미널 등지에서 득표 활동을 펼쳤다.

◇**새정치, 윤장현 지원에 온도차**=안철수 공동대표가 1일 윤장현 후보 지원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다시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과 24일에 이어 2주만에 3번째로, 안 대표가 그만큼 광주선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어 2일에는 김한길 공동대표 부부(부인 탤런트 최명길)와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정세균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윤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문재인 의원 측은 "안철수 대표로부터 광주선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문 의원은 박빙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영남권 방문 일정이 이미 짜여 있는 상태"라며 광주 방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고문 측도 "손 고문이 경기도 지원 유세 때문에 광주를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1일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 지원 유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광주에 내려갈 계획이 없다"면서 "수도권만(지원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 호남은 갈 생각을 안했다. 광주·호남은 누가(당선)돼도 우리 식구니까, 새누리당하고 싸우는 데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장 후보 중 누가 돼도 우리 식구"라는 손학규 고문의 발언에 대해 "말 없는 다수 당원의 표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특보

희망가득전환대출

※대상 : 아파트 담보대출

여신전문기관 (사금융 또는 캐피탈, 파이낸셜, 저축은행 등)

"고금리대출"을 신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세요!

추천 골목상권자영업자 특례보증대출 연2.0%~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 - 4474

아륭기공주식회사

사 원 모 집

당사는 40년 전통의 오일펌프 전문 제조업체 로서 국내 및 수출증가와 해외 법인 성장에 따른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모집부문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관리직	기 술	경력,신입 약간명씩	기계설계(펌프)가능자 및 경력자 우대
	품 질		기계(펌프)분야 경력자 및 일어가능자 우대
	영업관리		여직원, ERP가능자
	생산기술		MCT,CNC관리 유경험자 (퇴직자 시간제 근무 가능)
	수행기사		수행 경력자 우대
생산직			창고 정리 및 수출품 포장

2.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단에 응시분야 및 희망 년봉 표기)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E-Mail (r3714@nate.com) 접수

4. 급여조건 : 당사규정 및 본인 면접후 결정

5. 복리후생 : 4대보험, 주5일근무, 상여금500%, 각종경조비지급, 중식제공,통근버스(광주)운행

6. 제출기한 : 2014. 5. 28 ~ 2014. 6. 10

7. 근 무 지 : 본사 담양 공장 (동광주 IC에서 20분 거리)

8.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기획본부 (061-380-2201) 문의요함

아륭기공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8 (우 : 517-811)

Tel(061)380-2200 Fax 382-3094